

<2023학년도 전임교원 공개초빙 공고용>

지원자를 위한 학과소개 및 발전계획

장년트랙	비장년트랙			학과	초빙분야 (한글 및 영문)	정신분석학 (psychoanalysis)
	교육	연구	산학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디지털휴머니티융합학과 의료인문정신분석전공(원소속); 문화콘텐츠학과(제2소속)		

■ 학과소개 및 발전계획

■ 전공 소개

아주대학교 의료인문정신분석전공은 다학제적 정신분석학의 명문인 파리7대학, UCL, 에섹스대학처럼 석사, 박사 과정 모두가 개설되어 있으면서 정신분석학과 의료인문학을 중심으로 다학제적 연구와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일반대학원 전공이다.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일반대학원에 정신분석학 전공이 개설된 것은 본 전공이 국내 최초이고 2022년 9월 현재도 유일하다. 의료인문정신분석전공은 프로이트-라캉 정신분석학, 대상관계 정신분석학, 신경정신분석학(neuropsychanalysis), 의료인문학을 근간으로 하면서 빅데이터, 문화콘텐츠 연구와의 접목도 추구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본 전공은 연구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분석가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정신분석협회 산하 현대정신분석연구소와 MOU를 맺고 학생들의 임상훈련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위한 시험 응시에 필요한 교과들도 오픈하고 있다. 라캉/대상관계/신경 정신분석학, 의료인문학, 학회와 연계된 임상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러한 특성들은 아주대 의료인문정신분석전공이 정통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운 학문성과들을 흡수하여 파리7대학, UCL, 에섹스대학에 못지않은 세계 일류 정신분석전공으로 발전할 토대가 될 것이다.

■ 의료인문정신분석전공의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

본 전공은 정신분석학과 의료인문학 전문가를 양성하며 정신분석학/의료인문학 기반 현장실천과 융합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은 1)프로이트-라캉/대상관계 정신분석학, 의료인문학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 강화, 2)정신분석 실습과 임상현장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현장성 강화, 3)정신분석학/의료인문학, 신경과학, 텍스트마이닝의 연계를 통한 융합 연구/교육 강화를 추구한다. 본 전공은 정신건강 위기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정신분석학/의료인문학을 글로벌 수준에서 선도하는 의료인문정신분석전공을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것이다.

■ 신입교원 활용방안(기대 사항 등)

- 현재 정신분석학 전문 교수 1인에 집중되는 정신분석학 관련 과목을 신입교수가 분담함으로써 수업들이 보다 알차게 진행되고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도 더 좋아지길 기대함.
- 현재 석박사 학생들의 제1지도교수가 정신분석학을 전공하는 교수 1인에게 쏠려 있지만 신입교수가 제1지도교수를 분담함으로써 학생의 특성(연구/실무/융합 역량의 상태)에 따른 개별 맞춤교육이 강화될 것임.
- 신입교수도 일정 수준의 연구성과를 꾸준히 냄으로써 학과/학교 평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를 기대함.
- 정신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 MOU를 맺는 등 정신분석학의 현장화에 기여하길 바람.
- 신입교수는 문화콘텐츠 전공에 이중배속 될 예정인데, 문화콘텐츠학과와의 협업을 통한 융합역량 제고에 기여하길 바람.